

← 필동함박 1개



⚡ 배달 빠른 순

↓ 배달팁 낮은 순

기본순

주문 많은 순



필동함박 골목식당 포장

★ 4.7 (100+) 클래식 함박, 까르보 함박

⌚ 26~36분, 최소주문 8,500원

배달팁 4,300원~ 1,000원~

⚡ 번쩍배달 위생정보

고객님이 설정한 위치 기준으로
주문이 가능한 가게만 검색됩니다.



홈



검색



점한가게



주문내역



My배민

쓰레기 머학생인 나는 오늘도 실시간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저녁 메뉴를 고민한다.

친구에게 필동함박을 추천받았다.

좀만 걸어나가면 방문해서 먹을 수 있는 곳이지만 웨이팅 있으면 귀찮으니 배달의민족 번쩍배달로 주문하기로 했다.

라고 생각하는 동안에 친구가 이미 집으로 클래식 함박(8,500원)을 주문해둬서 선택지가 없어졌다.

사실 사주는 거 얻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



<https://www.facebook.com/%EB%8F%99%EA%B5%AD%EB%8C%80%ED%95%99%EA%B5%90-%EB%8F%BC%EB%82%98%EB%AC%B4%EC%88%B2-306974406139983/photos/pcb.631478010356286/631477217023032>

원래 이 곳은 코너스테이크라는 이름의 가게였다.

새내기 때 동기와 함께 선배가 사준 스테이크를 먹으며 즐거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백중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온 이후 메뉴가 함박스테이크로 바뀌고 기존의 스테이크 메뉴는 사라지게 되었다.

함박스테이크가 워낙 예쁘고 맛있어서 바뀐 이후 웨이팅도 생겼지만...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기존 메뉴도 팔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든다.

과도기에 학교를 다닌 화석이라 가능한 생각 ㅋㅋㅋ

선택지가 늘어나면 좋겠지만 지금 이대로도 좋다.

둘 다 좋다고는 하지만 솔직히 둘 다 맛있으면 스테이크보다는 함박스테이크를 뭔가 더 자주 먹을 듯.

이유는 모르겠다. 암튼 먹자.



맞춤법은 넘어갑시다

주문한 메뉴, 포크순가락, 감사 카드가 도착했다.

식었을 때 전자레인지에 1분 정도 돌리라는 팁이나 감사 인사가 별 거 아닌 거 같아도 리뷰 이벤트 없이 리뷰 쓰고 싶어 만드는 큰 요소다.

근데 내가 주문한 게 아니라서 배달의민족에 리뷰는 못 썼다.



맨밥만 남고 반찬 거리만 떨어지면 킹받는데 소스가 넉넉해서 모자람은 없었다.

시켜먹는 것도 좋지만 가게도 음식도 예쁘니 웨이팅을 피해 누구랑 가서 먹는 게 제일 좋겠다.

